

“과도한 이자 장사로 돈방석” 비판론 커져

상반기 순익 전년 대비 11%나 증가
금리 인상에 반기 기준 역대 최고
KB 필두로 신한·우리·하나 뒤이어
하반기 이자이익 증가세 이어질듯



4대 금융지주사가 2022년 상반기 9조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주요 계열사인 은행의 이자 장사를 통한 실적전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1일 열린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기념 촬영 모습. 배부열 NH농협금융 부사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범 신한금융 회장(왼쪽부터). 뉴스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가 2022년 상반기 9조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주요 계열사인 은행의 이자 장사를 통한 실적전치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이자 이익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코로나 19 이후인 2020년부터 이어진 일명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바람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상황에서,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받는 대출이자도 늘었기 때문이다.

● 금리 상승 속 이자이익 증가

4대 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8조96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0.8% 증가한 수치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순이익 증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이자 이익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코로나 19 이후인 2020년부터 이어진 일명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바람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상황에서,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받는 대출이자도 늘었기 때문이다.

또 대출금리는 올리고 그만큼 예금금리는 올리지 않아 예대마진(예금·대출금리 차이) 이익을 확대한 것이 결국 고객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5월 국내 은행의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37%p로, 2014년 10월 2.39%p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4대 금융지주는 상반기 이자이익만 18조8671억 원을 받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2% 늘어난 규모다. 각 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 5조4418억 원, 신한금융 5조1317억 원, 하나금융 4조1906억 원, 우리금융 4조103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7%,

	순이익	전년 대비 증가율	이자이익	전년 대비 증가율
KB금융	2조7566억 원	11.4%	5조4418억 원	18.7%
신한금융	2조7208억 원	11.3%	5조1317억 원	17.3%
하나금융	1조7274억 원	-1.4%	4조1906억 원	18.0%
우리금융	1조7614억 원	24.1%	4조1033억 원	23.5%

17.3%, 18%, 23.5%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한번에 0.5%p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해 기준금리가 2.25%가 됐고, 물가 상승률이 고공행진하면서 당분간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커 연말 기준금리가 2.75~3.00%로 전망되는 만큼 하반기에도 이자이익의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의 금융비용 증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대두된 은행의 사회적 책임론도 커질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금융부담 민생안정 과제에 대한 협조와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금융지주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정부가 30조 원 규모로 추진

하는 새출발기금에 동참하고, 자체적인 대출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약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 배당금 증가 및 자사주 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KB금융은 올 2분기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500원으로 결정하고,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의결했다. 하나금융은 주당 800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했으며, 우리금융도 올 2분기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150원으로 결정했다.

● 리딩금융은 KB, 우리는 3위 올라

각 사별 치열해진 경쟁 구도도 판점포 인트라. 먼저 리딩금융을 다투는 KB금융과 신한금융의 초집전 구도가 눈에 띈다. KB금융이 전년 대비 11.4% 증가한 2조756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1위

에 올랐지만, 신한금융도 전년 대비 11.3% 늘어난 순이익의 2조7208억 원을 기록해 1, 2위 간 순이익 차이가 358억 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2분기 개별 순이익만 보면 신한금융이 소폭 앞선 만큼, 하반기 리딩금융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3위 자리를 놓고는 하나금융이 우리금융에 역전을 허용했다. 하나금융은 전년 대비 1.4% 하락한 1조727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4.1% 상승해 1조761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우리금융에 3위 자리를 내줬다.

증권사와 보험사가 없는 우리금융의 경우, 은행 비중이 높다는 단점이 금리 상승기 이자이익의 증가와 맞물리면서 오히려 장점이 됐다. 반면 하나금융은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이에 하나금융 측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비화폐성 환차손 발생, 1분기 중 실시한 특별퇴직 등 일회성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NH농협금융은 26일 올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다.

정정국 기자 jay@donga.com

롯데카드, 렌탈로 할인 ‘마이 렌탈 플러스’ 출시



롯데카드가 롯데렌탈과 손잡고 ‘마이 렌탈 플러스 롯데카드’(사진)를 선보였다. 롯데렌탈의 장기렌터카 서비스부터 라이프스타일 렌탈 플랫폼

모미까지, 롯데렌탈의 모든 렌탈 상품 월 이용료를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할인해준다. 전월 이용실적이 50만 원 이상이면 월 5000원, 100만 원 이상이면 월 1만5000원, 150만 원 이상이면 월 3만 원 할인된다. 주유 및 전기차 충전, 카카오 대리운전, 그린카 카셰어링, 방문 세차 예약 서비스인 세차클링 할인 등 운전자를 위한 혜택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퓨처스랩 8기뱅크플러스 모집

신한은행이 29일까지 스타트업 공모 플랫폼 이노톡에서 ‘신한 퓨처스랩 8기뱅크플러스’를 모집한다. 신한은행의 하반기 중점 사업에서 협업하며, 혁신금융을 함께 실현할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했다. 주요 협업 영역은 모바일플랫폼 신한 솔(SOL) 내 생활금융 콘텐츠와 서비스, 메타버스 플랫폼 내 연계 콘텐츠, 이상행동분석 고도화 및 데이터 익명 처리, 블록체인 연계 디지털자산 금융 서비스, 반려동물 커머스 및 헬스케어 등이다.

NH농협은행, 금융 주제 ‘울원프렌즈 공모전’



NH농협은행이 9월 13일까지 자사 대표 캐릭터인 울리와 원이를 활용한 ‘제3회 울원프렌즈 공모전’(사진)을 개최한다. 금융을 주제로 한 창작

이모티콘과 통장표지그림으로 구성했다. 이모티콘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통장 표지그림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주제 적합성, 대중성, 독창성, 활용성, 완성도를 고려해 심사하며, 우수작품은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어린이 통장 디자인에 활용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KB국민은행, Z세대 겨냥 웹드라마 첫선

걸그룹 세계관 담은 판타지 로맨스
유튜브 채널서 ‘광야로 걸어가’ 공개

KB국민은행이 자사 모델인 걸그룹 에스파의 세계관을 차용한 첫 웹드라마 ‘광야로 걸어가’를 공개했다.

에스파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SMCU(SM Culture Universe): aespa’

의 세계관을 차용해 기획했다. ‘KB 광야점’이라는 새로운 메타버스 가상세계와 KB국민은행 고객 데이터로 만든 아바타 ‘ke(케이)’를 배경으로 구성했다. 그 속에서 미래 금융에 대한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KB의 모습과 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판타지 청춘 로맨스를 보여준다.

에스파가 직접 출연한 티저 영상에서는 웹드라마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에스파가 출연한 웹드라마 ‘광야로 걸어가’ 티저 영상. 사진제공 | KB국민은행

모습을 담았다. 번외편 포함 총 5편으로 구성했으며, KB국민은행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회사 측은 “충성 팬덤을 사로잡기 위한 세계관 마케팅의 일환으로 Z세대가 중심

인 에스파 팬들과 양방향 소통을 통해 이번 웹드라마를 기획했다”며 “미래 금융 플랫폼을 위한 스토리텔링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8월 3일까지 ‘수능 D-100 수험생 응원 이벤트’를 연다. 수험생을 응원하고 싶은 KB스타뱅킹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 학생명, 학교명, 응원메시지를 작성하면 된다. 이벤트 응모 고객 중 총 106명을 추첨해 전교생 대상 간식차, 학급 대상 도미노피자 20판, BBQ치킨 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정정국 기자

정정국 기자 jay@donga.com

오늘의 날씨			26일(화)		
서울 0/0	인천 0/0	춘천 0/0	24 33	24 31	23 34
강릉 0/0	대전 0/20	전주 20/60	23 30	23 34	23 33
광주 20/60	대구 20/20	부산 20/0	24 33	24 34	23 30
창원 20/0	제주 0/20	지역	24 32	24 30	강수 확률 (오전후) 최저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74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임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26일(화) 음력: 6월 28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국가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오늘은 관재수를 조심해야 한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으려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물과 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인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급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히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시도하라.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어려움은 해결은 응대에게 부탁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자신의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우며 능력의 한계로 인한 피로감이 쌓이기 쉬울 때이다. 그러나 점차 지금까지의 상태에서 벗어나 활동의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뜻이 관철되는 계기가 조성된다. 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라 재미본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신용과 책임있는 자세로 과감하게 선두에 서는 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번민이 따르니 변화나 변동상황에서 자제하여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머리를 쓰라.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화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부리지 말라.